

국내 건축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 유망국가 선정에 위한 지표 조사

Index Survey for Selecting the Expansion Potential Country in ASEAN of the Domestic Design Companies

여창재* 유정호**

Yeo, Chang-Jae, Yu, Jung-Ho

키 워 드: 해외시장, 건축기업, 지표

Keywords: International Market, Architecture Company, Index

1. 서론

세계(Global)건설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9.3조 달러로 추정되며, 2014년 9.8조 달러에 비해 0.5조 달러 감소되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증가로 2001년 부터 2008년까지 8년간 약 11% 성장을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기업에게 개방된 해외(International) 건설시장 규모는 미국의 건설전문지 ENR에서 매년 발표하는 250대 해외 건설기업 및 225대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매출액 합계를 통해 추정하였는데, 2014년 해외건설 시장은 250대 해외건설기업 5215.5억 달러, 225대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업 해외매출 708.5억 달러로 총 5,925억 달러로 추정되며, 해외건설 시장은 세계건설시장 대비 약 6.1%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건설시장 증가율 추이는 세계건설시장 증가율과 유사한 흐름이나 보다 더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증가율 추이는 세계건설시장 증가율과 유사한 흐름이나 보다 더 등락폭이 크게 나타난다.

ENR 기준 2014년 전체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약 708.5억 달러(13년 716.3억 달러)규모이며, 해외건축(설계)의 경우 전체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중 약 18%(13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은 1.9%(13년 1.4%) 세계 12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해외건축시장 중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건축(설계) 시장 점유율은 0.7%에 불과하다. 해외건설협회 통계 기준,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지난 10년 수주 누계는 총 5,260억 달러로, 이중 건축 시공부문 수주는 약 743.7억 달러로 전체의 14.1%차지하고 있으며, 건축설계는 약 57백만 달러로 전체 해외건설 수주의 0.09%, 용역 부문에서는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는 주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하청으로만 해외시장에 진출하다가 2007년 이후 원청으로 수주형태가 확대 되었다. 하지만 전체 해외건설 및 용역 실적 대비 그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

2014년 기준 국내시장규모는 건설부문 기성액 약 98.5조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문 매출 27.6조원으로 총 126.1조원 규모이다. 건축설계의 2014년 매출은 약 5.1조원으로 과학기술 서비스업 매출 대비 18.6%이며, 국내 건설시장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설계는 해외 대비 국내시장에 많이 치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공식 출범하며 역내 물리적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아세안은 인구 6.3억 명(세계 3위, 8.7%), GDP 2.5조 달러(세계 7위, 3.3%)의 경제블록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함께 낙후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증가하는 역내 인프라 수요 및 성장 둔화를 보이는 중국의 대체 투자시장으로 아세안 지역이 부각되며 ODA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가속화되고 있다. 2014년 아세안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1,362억 달러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3%대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캄보디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규모면에서는 싱가포르가 약 721억 달러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다. 또한 Global Insight에서는 ASEAN의 건설 및 건축시장 성장을 또한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빠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기업의 성공적인 ASEAN국가 진출을 위하여 ASEAN 10개국 중 진출유망국을 선정하기 위한 관련 지표를 조사하고자 한다. 지표 조사는 국내 건설 및 건축 등의 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한 진출유망국을 선정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지표를 조사하고, ASEAN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진출유망국가 선정 지표 도출

2.1 기존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ASEAN 10개국 중 국내 건축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진출 유망국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유망국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다음의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각 연구별 해외진출 유망국 선정방법 및 지표들을 조사하였다.

1)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유망국가 분석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유망국가 분석 연구에서는 진출유망국 선정을 위하여 해외건설 유관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권역별 혹은 국가별 진출현황, 진출시 고려사항, 진출전략등을 제시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였으며, 선행 문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시장 현황, 진출전략 등이 제시된 국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건설협회의 건설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수주실적을 살펴봄으로써 유망국가를 선정하였다.

2) 국내기업 해외도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국내기업 해외도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 지표를 크게 경제규모, 신용등급, 사회환경, 도로현황, 수주통계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총 23개 세부평가항목을 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총점을 기

* 일반회원,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박사통합 과정, yeocj89@kw.ac.kr

** 종신회원,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myazure@kw.ac.kr

준으로 대륙별 상위 6개 국가를 중점진출 국가로 선정하고, 선정된 6개 국가를 다시 A, B, C 군으로 구분하였다.

3)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연구에서는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의 진출 우선순위 국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국가 선정 Selection Factor를 도출하였으며, AHP 정량화 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우선순위 국가를 선정하였다. Selection Factor는 건설산업 규모, 경제 성장가능성, 건설 교류/협력관계, 인프라 개발수요, 인프라 구축 현황, 캄보디아 밀집도, 건설관련 제도 수요, 정보 접근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방안 연구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아시아 권역 진출 유망국가 선정은 Market-Risk Matrix 분석을 통해 우선적 진출 국가를 선정하였다. 시장성(MARKET) 지수는 건설 산업규모, 국가 성장성 및 해외 원조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Market 지수가 높으면 국가 성장성이 높고 건설 산업 규모 및 해외원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출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를 의미한다. 안정성(RISK) 지수는 경쟁구조, 국가 주요 지표, 건설사업 수행환경 및 제도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해당 국가의 국가 위험도나 사업 여건이 불안정한 정도를 의미하며, Risk 지수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가 있는지를 측정 할 수 있다.

5)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조사. 교육체계 및 내용연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조사. 교육체계 및 내용연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비교적 진출하기 용이하고 시장잠재력이 크며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아시아를 선정 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금액 통계 1~10위 10개 국가를 중점진출국으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객관적인 진출 유망국가 선정을 위해 경제규모, 신용등급, 사업환경, 수주통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정해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 국가에 대한 플랜트 건설 수요, 중소·중견기업 진입 장벽,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하였다.

2.2 진출유망국가 선정 지표

5개의 해외진출 유망국 선정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는 총 22개로 나타났으며, 22개 지표들을 구분하면 경제규모, 시장안정성, 국가안정성, 해외 원조규모, 시장선점가능성, 건설관련 주요제도, 건설교류/ 협력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진출유망국가 선정 공통 지표

구분	지표
경제 규모	GDP, GDP 증가율,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인구, 국토 면적, 건설시장 규모, 건설시장/GDP규모
시장안정성	물가상승률, 국가신용등급
국가 안정성	OECD 국가 위험도 평가, Standard & Poors 국가신용도등급
해외원조 규모	주요 지원 국가수, 우리나라 무상원조 규모, 우리나라 유상원조 규모, OECD-DAC 국가 지원 규모, Multilateral 지원 규모
시장선점 가능성	현지진출기업, 국내 업체 수주액
건설관련 주요 제도	건설관련 법(제도)현황
건설교류/협력단계	건설관련협정체결 여부, 외교관계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건설관련 해외진출 유망국을 선정하였던 연구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던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이 지표들을 통해 해당국가의 경제 규모, 시장안정성, 국가 안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좀 더 건축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필요하다. 향후, 건축분야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지표(도시화율, 주택보급률 등)들을 도출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4R1A2A2A05006437).

참고문헌

김상범·곽현준 (2013).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유망국가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 14권 제2호
 한국교통연구원·해외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 “국내기업 해외도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한국플랜트건설연구원·해외건설협회(2015).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시장진출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조사. 교육체계 및 내용연구”, 국토교통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2014).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한국CM협회·국토교통부